

사회복지시설 탐방 ⑭ 선혜원 이정환 목사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자립·자급시설 지향

“사회복지시설을 만들기 위해 10년을 넘게 준비해왔습니다” 선혜원은 양로시설로 김태선 원장을 시설장으로 이정환 목사에 의해 지난해 4월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해 6월 2일 공식 개원했다. 이 시설은 신고시설로 무료와 유료 병행 실시하고 있는 양로시설이다. 선혜원은 관인면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이정환 목사가 우연한 기회에 미국의 복지시설 교환 교육에 참석한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했다. 선혜원을 설립한 이정환 목사로부터 시설의 현황 등에 대해 들었다.

이정환 목사는 “미국에 갔던 것이 26년전인데 당시 미국역시 노인문제 부각되어 소규모 위탁교육형태로 월 600~1400달러의 비용을 지불하고 양로시설에 위탁하던 시기였다”며 “한국에도 노인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어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선혜원을 설립하기 위해 이정환 목사가 목회를 맡고 있는 대현에 수교장로회 파로교회는 10여년을 준비하며 자립, 자급의 시설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선혜원은

대지 2천500평에 건평 90평의 건물로 태어나게 됐고, 자급을 위해서는 3천평, 유실수를 심을 수 있는 일야 1만평, 노인의 임종시 모실 수 있는 모더 4천평 등을 마련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 목사는 “선혜원은 양로원의 개념보다는 살바타운의 형식으로 홀로노인이나 부부간에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물론 그 뒤에는 선교의 일환으로서 신앙생활도 포함되지만 종교에는 구애받지 않고 노인들을 돌보고 있다”고 밝혔다.

선혜원에는 현재 18명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으며, 이 중 6명은 수급자로 무료 입소에 있으며, 나머지 인원은 일반인 월 3만원의 비용으로 생활하고 있다. 또 직원으로는 김태선 시설장 전도사인 신정수, 황보말숙 부부, 간호조무사 1명, 생활보조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목사는 선혜원 운영에 있어 “현재는 교회가 많은 부분 도움을 주고 있다”며 “연간 40가구의 쌀과 난방 비용등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선혜원은 현재 설립한지



선혜원은 양로시설로 김태선 원장을 시설장으로 이정환 목사에게 의해 지난해 4월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해 6월 2일 공식 개원했다.(원안은 시설을 돌보고 있는 신정수 전도사 부부)

얼마되지 않아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인원이 더욱 많아질 때를 대비 노환이나 발병 등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은 요양시설로 발전이라는 이 목사. 이 목사가 이런 결심을 굳히고 있는 이유는 현재 선혜원의 일부 부지에 군내면 용정리에 위치했던 유일사랑의 집이 한창 이전공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목사는 “장애 시설인 유일사랑의 집과 협의해 노인의 노환이나 질병, 장애 발생시 서로 협조 체제를 구축, 장기적으로는 종합 요양시설로 거듭나야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선혜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하고 있는 것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요양원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선혜원에 입소한 노인들의 가족에게는 항상 방문을 종용하며 노인들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응원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이 목사는 자원봉사자들의 지속적인 방문은 노인들의 상실감을 불러올 수 없기에 조심스럽기도 하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방문은 노인들의 정서나 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어 바람직 하지만, 자칫 방문이 단절되었을 때 상실감을 더욱 크게 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봉사를 선택할 때 뚜렷한 목표와 주기 등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스스로 자문하는 것도 좋을 것이

다”고 설명했다. 현재 선혜원이 가장 필요로 하는 봉사는 보건소 등 전문의료기관의 정기적인 의료봉사이다. 이 목사는 “입소자들이 노인들이기 때문에 더욱 필요로 하는 것이 의료봉사”라며 “이 외에도 목욕이나 이, 미용봉사 또한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목사는 “사회복지시설은 일반인들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만드는 입안자들의 관심이 더욱 중요하다”며 “정치인들이 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것에 제약을 없애 참여 사회봉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031-532-5907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 심터

상호성의 법칙



석혜승  
보문정사 주지

‘로버트 치알디니’의 저서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는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6가지 심리법칙’을 잘 활용하라고 일러준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상호성의 법칙’이라는 것인데, ‘나에게 잘 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잘하고 싶다는 심리’가 작용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준다는 의미는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모두를 포함한다. 뭐 그 정도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것을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다. ‘리키’라는 인류학자는 상호성의 법칙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까지 하겠다고 하니 그 인식의 차이는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나에게 잘 해준 사람에게 나도 잘하고 싶다는 생각’은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선다.

이것은 본능과 연결되는 심리작용이기 때문에 생존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모든 인간관계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주려고 하기보다는 받으려하는 마음이 더 크다.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고 설득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서로 왜 감동이 있는지를 설득이 어려울지 잘 모르고 있다. 인류의 모든 성인들이 하나같이 역설하는 것이 있다면 아직 없이 배풀라는 가르침이다. 배풀의 힘은 그 만큼 위대하고 크기 때문이다. 지금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다면, 누군가와 갈등 없이 지내고 싶다면 우선 내 것을 주고 볼 일이다. 필자연락처 031-542-0032



의미의 빛소 새이야기 ③

영천목장 편지

우리 영천 목장은 착유우 27두와 육성우를 포함하여 80두를 사육하며, 평균 유량 650kg을 서울우유에 납유하는 그리 크지도 작지도 않은 평범한 목장입니다. 목장의 아침은 착유와 함께 시작합니다. 어린 송아지가 1년 정도 자라면 수정을 시킵니다. 수정된 소는 사람과 같이 10개월이 지나면 송아지를 분만하며 바로 착유를 할 수 있습니다. 착유는 아침, 저녁으로 하며 TMR 배합 사료를 먹고 조사료는 수일 건조를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일 건조는 가격이 부담스러워 우리 목장에서는 육수 사육리지, 벵골 등을 농사져서 함께 먹입니다. 육수 사육리지는 사람으로 비교하면 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은미  
주부명예기자단 총무  
가산면 공현리

8월 중순이 되면 육수 사육리지를 땅 속에 저장하고, 밭에는 가족 분노를 넣어서 트랙터로 로타리를 쳐서 김장용 배추와 무를 심습니다.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가축분뇨만을 거름으로 하여 땅의 토질이 좋아 신선한 무공해 유기농 배추, 무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목장의 가축분뇨도 처리하고, 밭을 활용해서 농사를 지어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축산업 등록제, 친환경 축산, 고 품질 원유 생산 등 우리 낙농인 모두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목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정돈하여 좋은 자연 환경에서 소를 기르기 위해 노력하며, 많은 일을 열심히 하면 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낙농인이여 파이팅!

詩

파란 하늘

손을 뻗으면 잡힐 거 같은 파랗게 물들어 물감칠 하듯 휘저으면 그만 쏟아 질 거 같은 그런 하늘이 너무 좋았습니다.

바다 한 가운데 서 있는 거 같은 그 속에서 첨벙머리 머물고 싶을 만큼 그런 몽개 구름이던 더 좋았습니다.

승 문지 하나 가득 때내 이슬처럼 불리고 나면 그 속에 뽕고고 싶을 만큼 더 폭신한 구름이던 더 좋았습니다.

아주 아주 오랜만에 잊었던 기억들을 찾듯이 더 정감가는 하늘이던 더 좋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바다와 하늘이 서로 친구하듯이 빛으로 그림 그려듯 휘저으며 놓고 있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흐린후 맑음

한동안 폭풍우속에 내가 있었는지 내가 폭풍우였는지 지금의 마음입니다.

요즘날 사랑을 합니다. 마음의 척추를 나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하늘을 사랑하고 바람을 사랑하고 햇빛을 사랑하고 같이 숨쉬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옥신각신 싸움도 하지만 그들을 사랑합니다.

친구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너무 잘 안다고 성내고 할귀기도 하지만 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우린 아무일 없었던 듯 다시 사랑을 시작 합니다.

다 제각기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동근마음, 각진마음, 세모진마음, 아마 점하나 만한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할 수 있는가 봅니다. 내가 사람들을 이토록 좋아하게 되버린 걸 보면

웃음이 납니다. 피식피식 의미없는 웃음이지만 내 마음의 평화로움을 말해주는 웃음입니다.

한편으로 걱정도 됩니다. 동무라는 친구라는 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기엔 내가 너무 작은 보이지 않는 점 하나에 불과하지 않는가? 하지만 노력합니다.. 풍요만한 마음에서 커다란 섬터가 되어 줄 수 있는 콩나나무 같은 마음이 될 때까지 노력합니다. 우리 동무들 화이팅.



김순희  
주부명예기자단 (내촌면)



김은주  
주부명예기자단 (화현면)

인터뷰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이효정 · 소흘읍지부장

“예체능 교육도 포천에서 할 수 있었으면”

“지역소식 다양하게 전달하는 포천신문 반갑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자 생명보험에서 화재보험으로 보험회사를 옮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업무가 매우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화재보험은 영수증만 제출하면 전액 보상에 주기 때문이죠” 삼성화재 팀장이자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소흘읍지부 이효정(41·소흘읍 송우리) 지부장이 바쁜 사무실에서 만나 밝힌 첫머리다. 10년 전에 이사와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이 지부장에게 포천은 이제 삶의 터전이 되었다.

그러나 포천에서 불편을 느끼는 것은 교육문제다. 특히 예체능교육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도 답을 얻을 수가 없다. 따라서 서울로 보내야 한다. 서울에서 공부해야 예체능은 성공할 수 있다. 특히 애니메이션 분야는 전문하다. 아들이 애니메이션을 공부했는데 포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결국 흥대 앞에 나가야 한다고 한다. 이 지부장이 포천신문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최두열 전무이사와의 인연이며 지역신문으로서 소식을 많이 전달해 주는 포천신문이 너무 좋다고 밝혔다.

주부명예기자단 소흘읍지부 소속 주부명예기자가 가장 많다.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만큼 언론에 민감한 지역이라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30여명의 주부명예기자들이 명예기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그날 그날 주어진 일을 정직하게 처리한다는 생활철학을 바탕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 지부장은 소흘읍지부의 발전을 위해 함께 의논하고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지부장은 “어떤 상황이라고 세세하게 볼 수 있다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열심히 포천신문 제작활동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선예 · 가산면지부장

“어려웠던 삶을 글로 바꿔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한 몫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일상의 고통과 슬픔을 글로 통해 정리하는 작업으로 삶을 기구어가고 있습니다.”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가산면지부 김선예(37·가산면 감암리)지부장은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기억을 잊어버린 남자’가 되었다며 그동안의 어려웠던 삶을 이렇게 말한다.

남편이 병원에서 투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팠던 이야기를 ‘신랑병원일기’에 담았다는 김지부장은 남편의 잊어버린 기억을 되찾기 위해 집안에 플래시음악을 가득 전시하고 있다고 한다.

고통과 슬픔은 지난해 김지부장이 갑상선암 수술로 최대 고비를 맞게 된다.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늘 밝은 마음으로 하나하나 삶을 기구어 가고 있다는 이 지부장이 포천신문을 만나게 된 것은 가산초등학교 어머니회장이며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총무인 이은미씨의 소개에서 비롯된다. 이 지부장은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이들과 더불어 불우이웃돕기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 할 수 있다는 말에 일단하게 되었으며 가산면지부장으로서는 지부모임시 모은 회비중 10%를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기로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지부장은 또 주부명예기자단 모임이 만나서 밥만 먹고 헤어지는 모임이 아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한 몫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랑의 동전 모으기 운동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숨어 있거나 방치돼 있는 동전을 모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동전을 담을 수 있는 예쁜 저금통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예의 바르게 살자’를 생활신조로 삼아 아이들에게는 어른공경의 미덕과 이웃과 절친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며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가산면지부 단원모임은 지부에서 먼저 철저하게 심사하여 선발할 계획도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군내면 직두1리 경로당 준공식

1사1촌 서울경찰청 참석 우정 과시

정ובה 마을, 버섯마을로 알려진 포천시 군내면 직두1리(이장 윤봉현)에 경로당이 준공됐다.

포천시는 지난 5일 군내면 직두1리 경로당 앞마당에서 마을 주민 및 내빈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로당 준공식을 개최했다.

포천시 군내면 직두1리 776-36번지에 준공된 경로당은 32평의 규모에 철근콘크리트조로 부지 96평에 기존 정ובה 마을을 증축해 건설했다.

시비 1억원이 소요된 이번 공사는 지난 5월 4일 착공해 지난날 31일 완공됐다.

직두1리는 윤봉현 이장, 이복현 노인회장, 강복순 부녀회장 및 신철철 지도자 등이 마을을 이끌고 있다.



군내면 직두1리 경로당이 준공된 가운데 주민 대표 및 내빈들이 경로당 현판식이 마련됐다.

한편 이날 준공식에는 직두1리와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서울경찰청 임승택 경비과장 등 직원 40여명이 참석해 우정을 과시하기도 했다.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생활속의 법률상식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부득이하게 소송에 휘말리거나 소송을 통하여 일을 해결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망망대해에 홀로 버려진 듯한 막막함에 힘들어 할 것이다. 이럴 때 대법원 홈페이지를 찾아보자. 그곳



김미경  
주부명예기자단  
영북면지부장

로법률상담을 해주고 있다. 이곳에서는 농협, 지원을 받고 있으며 농협조합원인 경우에는 무료로 소송대리도 해주고 각종 법률문서 작성도 갖추고 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포천시청에 문의

의해 보라. 포천시청의 경우는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전문 변호사 및 세무사가 무료로 상담을 해 주고 있다. 소송에 임하기 전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를 거친 후에 법률구조공단, 시청의 무료법률상담 등을 통해 사건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 소송에 임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소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송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명한 사건 처리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문화체험 페스티벌

포천시자원봉사센터(소장 문은주)는 오는 19일 포천시종합체육관(예정)에서 함께 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의 일환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문화체험 및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근로자에게 한국인의 맛과 정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인근로자 150여명과 자원봉사자 5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행사는 공식행사 및 레크리에이션, 문화이벤트 등으로 진행되며 특히, 문화이벤트도 명절이야기(리플렛 제작), 송편만들기 체험, 한복입고 사진 찍기, 장기자랑, 세계의 민속춤 배우기, 한바퀴게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